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8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활용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 술 교육전공

문 성 화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활용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Develop programs for personality by utilizing
traditional art and art therapy.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201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문 성 화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활용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김 종 경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문 성 화

문성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홍 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유 섭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종 경 인

201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목 차	i
표 목 차	iii
그 립 목 차	iv
부 록 목 차	v
ABSTRACT	vi
제 1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절 연구문제	3
제 2장 이론적 배경	4
제 1절 전통미술과 인성교육	4
1. 전통미술의 개념 및 특징	4
2. 전통미술교육의 현황 및 인성교육	6
제 2절 미술치료교육을 통한 인성함양	15
1. 미술치료교육의 개념	15
2. 인성함양과 미술치료교육의 연관성	18
제 3절 선행연구 고찰	21
1. 미술치료교육과 인성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21
2. 선행연구 고찰 및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24

제 3장 전통미술을 활용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26

 제 1절 프로그램 연구 방법 26

 1. 연구 대상 26

 2. 연구 방법 27

 제 1절 프로그램 설계 28

 1. 프로그램 목표 28

 2. 프로그램 설계 모형 29

 3. 프로그램 지도 방안 30

 제 2절 프로그램 구성 31

 1. 프로그램 개발 31

 2.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 32

제 4장 프로그램 적용 및 기대효과 39

 제 1절 교수-학습 계획 및 프로그램 적용 39

 제 2절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62

제 5장 제언 67

참고문헌 70

부 록 73

표 목 차

[표 1]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 조사(N=404)	7
[표 2]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 표	9
[표 3] Josephson Institute의 6 pillars 항목	11
[표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인성교육 교육방향	13
[표 5] 아동의 미술치료 효과 요소(자아존중감, 사회성, 자기표현)와 연관된 덕목	19
[표 6]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에 관한 선행연구조사 표	21
[표 7] 연구절차	27
[표 8] 프로그램 설계 모형	30
[표 9] 프로그램 개발 구성 표	31
[표 10] 프로그램 초기 단계	33
[표 11] 프로그램 중기 단계	34
[표 12] 프로그램 후기 단계	37
[표 13] 1회기 활동 지도안	40
[표 14] 2회기 활동 지도안	42
[표 15] 3회기 활동 지도안	44
[표 16] 4회기 활동 지도안	47
[표 17] 5회기 활동 지도안	50
[표 18] 6회기 활동 지도안	53
[표 19] 7회기 활동 지도안	55
[표 20] 8회기 활동 지도안	58
[표 21] 9회기 활동 지도안	60
[표 22] 프로그램 전, 후 설문지 결과 통계 표	62

그림 목 차

<그림 1> 나는 누구일까요? 활동 결과물	41
<그림 2> 감사 꽃다발 만들기 활동 결과물	43
<그림 3> 나만의 먹그림 활동 결과물	45
<그림 4> 거미줄 난화 활동 결과물	48
<그림 5> 한지 조각보 만들기 활동 결과물	52
<그림 6> 감정 탈 만들기 활동 결과물	54
<그림 7> 까치호랑이 재구성하기 활동 결과물	56
<그림 8> 우리의 우주 활동 결과물	59
<그림 9>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활동 결과물	61

부 록 목 차

(부록 1) 인성 관련 설문지	73
(부록 2) 한국 전통 민화 “까치 호랑이” 참고 이미지	75

ABSTRACT

Develop programs for personality by utilizing traditional art and art therapy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Moon Sung-hwa

Advisor: prof. Kim, jong-kyoung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tudy has developed a program to help develop a positive perception of children's character and develop a posi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art by utilizing artistic features and traditional art.

The program was developed by applying a program aimed at 20 children aged 7 to 8 living in Gwang-ju city. The development program lasted nine sessions from February 1, 2017 through March 4, 2017.

Prior to the program activity, the data were collected, followed by questionnaires and questions and interview format,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First, the therapeutic function of art allows children emotionally expressing emotional expression and inner thoughts to express emotional expression and inner thoughts and emotions, and through immersion in absorption, emotional activity helps children lead a better life. During the session, the composition of the personality involved in the personality of the human spirit resulted in the nature of the personality education, self-control, respect, respect, respect for others, and integrity of the character. Children were able to acquire a positive relationship an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through the time to assess the positive

feedback time and the outcome of their activities and to assess the outcome of their a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re was a positive effect by improving respect for self esteem, responsibility and respect for others.

Second, children showed little interes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in traditional art,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activity, but gradually changed as the session progressed. Lack of experience in traditional art shows that the focus of the nation's art education is focused on the sophistication and content of the art education, showing a neglected disregard for traditional culture. In the early stages of the session, he attempted to make fun of himself by choosing to draw a style of painting, making it easy to draw a piece of artwork, instead of drawing on a piece of paper that is difficult to paint, spread, or write to the hwaseonji or hanji. It also induced the reader to positively change the traditional and nega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art by providing enough time to search for materials and expose traditional materials to children, and use interesting activities such as ingredients that children have encountered.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positive perception that children's interest in traditional art has increased and that they can be creatively exploited, regardless of their creativity and strangeness.

Therefore, it was revealed that the program developed by the use of the healing arts and the traditional art of art helped buil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hildren's right to build a proper character an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traditional art.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initiat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First of all, programs of various activities involving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teachers ' education, and efforts are needed at a social level for the sake of the general purpose of the tools and the positive perception of the traditional art. For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raditional art, one must inform and enrich the values and explore new ways of searching for new opportunities. Second, an art program based on the therapeutic function of art requires continuous research to influence child development and maximize its effect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extent to which the number of researches

and research subjects are insufficient to identify the effects of developing programs for developing children's personality and positive perception of traditional art.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는 삶의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또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사회성 및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들은 아동들이 여러 환경에 적응하고 습득되는 과정으로 잘못된 형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동기의 인성형성은 오랫동안 교육의 화두이자 목적이 되어왔다.¹⁾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육이 경쟁의 수단이 된 입시 위주의 형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이 경쟁의 수단이 되고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주입식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마비시킨다. 더 나아가 교육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선행 학습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서적 발달과 인성형성이 중요한 아동기에 이러한 선행학습위주의 교육은 아동의 정서 결핍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정서결핍의 문제는 후에 자기 중심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또래와의 소통의 단절로 인한 존중, 배려가 낮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부족과 분노조절장애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1세기는 더 이상 지식을 습득하는 시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인성을 토대로 길러진다고 본다.

1) 김한결, “미술치료적 접근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중학교 미술과 체험영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

또한 바람직한 인성은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가치관형성, 공감능력,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미술은 그 특성상 표현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자유로운 감각 표출을 돕고 미적 향유를 통한 정서함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의 방향과 관련이 깊다. 특히 미술의 치료적 기능은 언어적 의사소통에 미숙한 아이들의 정서표현과 자신의 정서 인식에 매우 효과적이며 미술표현이나 평가에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미술작품을 제작하면서 몰입을 통해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완시키는 생리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두려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

Malchiodi, 최재영, 김진연, (2009) 은 실제로 창조적 활동은 우울과 화학적인 관련이 있는 뇌의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복적이고 자기이완적인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와 혈압, 호흡의 감소 즉, ‘이완적 반응’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미술 치료적 기능은 미술의 조형적인 활동, 미적활동을 넘어 개인의 내적성찰과 자아인식 등 심리적 접근 이 가능하기에 미술을 통한 인성교육을 이루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인성함양을 위해 전통미술을 활용한 미술프로그램 개발을 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미술교육 현장은 서구적인 미술이론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어려서부터 주로 접하고 영향 받았던 문화와 미술 영역이 서양 미술 문화이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낮설고 어렵게 느낀다.

최명숙, (2014)²⁾은 학생들이 전통미술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전통미술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해부족으로 전통미술이 자신들에게 재미와 기쁨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보통 학생들은 ‘전통미술’이라고 하면 ‘옛 것, 고루하다, 과거, 역사, 문화유산’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또한 디지털 감각에 익숙한 학생들은 전통미술의 아날로그

2)최명숙, “미술과 수업에서 한국화 한지민예품 교육-2009개정 초등 3-4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지』, vol.37, (2014), p.47.

감각이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보았다.³⁾ 그러나 전통미술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술 프로그램을 아동들에게 노출시키고 놀이로써 자연스럽게 접하게 한다면 더 이상 전통미술은 고리타분하고 어렵고 낯선 것이 아닌, 흥미롭고 얼마든지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아동기의 인성함양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통미술의 장점을 미술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아동의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즉 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올바른 인성함양과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술의 치료적 기능과 전통미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아동에게 실시하여 인성함양에 대한 효과와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 본 프로그램이 아동의 인성함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가?

연구문제2 :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인식 변화가 있는가?

3) 최명숙, 전계서, p.49.

제2장 이론적 배경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동기의 인성함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성함양을 위한 전통미술의 활용과 미술의 치료적 기능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 1절 전통미술과 인성교육

1. 전통미술의 개념 및 특징

전통미술에 대해 정의하기 전에 먼저 전통이란 무엇인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전통이란 단순히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전통의 개념이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유물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계통’ 혹은 ‘계통을 전해 받음’ 즉 집단이나 공동체 속에서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으로 정의 할 수 있다⁴⁾. 즉 전통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과거와 연관하여 현재의 삶을 창조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볼 수 있다.

전통미술은 이러한 우리의 풍속과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는 특정한 재료로 이루어진 미술품, 민속 공예품 등을 말하며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전통적 아름다움을 가직한 조형예술이다. 우리의 전통미는 섬세하면서 우아하고 자연과의 조화

4) 송인혜, “전통미술을 기초로 한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초등학교 미술과 5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전공, 석사학위논문, 2010), p.5

를 이루는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⁵⁾ 또한 좁게는 동양화, 한국화로 우리나라 전통 회화 방식, 즉 그림 그리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통미술에는 우리민족의 가치관, 종교관, 생활방식, 행동양식 이 깔려 있으며 그 안에 절제, 담백함, 단순함, 자연미 등의 미의식이 존재한다. 즉 전통미술이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얼이 담긴 예술로써 조상들의 미의식이 담긴,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을 포함한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미술의 부분인 전통회화의 특징을 보면 그 첫 번째는 먹의 재료적 특징이다. 먹은 전통회화의 가장 중요한 안료 이다. 먹은 개개인에 따라 필력을 통한 선의 표현, 농담의 표현이 변화무쌍하다. 둘째로 ‘여백의 미’이다. 예로부터 동양화 에서는 그림에 여백을 둬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비움의 미학’을 발견하였다. 셋째로는 ‘상징성’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회화인 ‘까치호랑이’를 보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상징성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소나무와 같이 등장하는 까치는 길조(吉鳥)를 상징하며 호랑이는 그 용맹성으로 인하여 벽사(辟邪: 나쁜 것을 쫓아냄)의 기능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한 쌍의 원앙은 어느 한쪽을 잃더라도 새로운 짝을 얻지 않는다 하여 부부간의 정조, 백년 화목의 상징으로 보았고 나비는 기쁨의 상징, 십장생은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으로 보았다. 이는 인간의 삶과 연관이 있으며 삶의 이치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전통미술의 특징은 자연주의적이다. 한국의 전통회화뿐만 아니라 건축, 공예, 조각부분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난다. 자연을 활용하고 순응하며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인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탈규범적, 비정형성, 자연친화적 특성을 지닌다. 또한 그 재료 자체가 가진 특성을 살리며 기교적이거나 치밀한 형식적 표현보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표현과 절제이다. 또한 ‘선, 형, 색’의 특징을 지니는데, 야나기 무네요시, (2006)는 조선의 심정에서 자연, 건축, 음악, 기불 등 모든 것에 선의미가 있고 그 형태가 직선보다는 곡선에 가깝다고 하였다. 또한 최순

5) 전통미술의 감상, 네이버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347&cid=47310&categoryId=47310>

우, (2002)는 한국 회화의 색채 감각은 담백하고 조용하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등근 형태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형미가 탄생되었다.⁶⁾

우리나라의 전통미술은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 철학, 미의식, 종교, 기호, 지혜, 멋, 창의성, 생활 풍속, 등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경험적, 선형적인 측면에 의미가 있다. 우리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통미술을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2. 전통미술교육의 현황 및 인성교육

본 연구는 아동들의 전통미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관심을 높이고 전통미술을 통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통미술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와 인성교육의 특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미술교육을 보면 전통미술 부분의 비중이 적고 현장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경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통미술교육의 현황을 사례조사를 통해 보면 이상화의 “조선후기<책가도>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는 전통미술은 학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어렵고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다. 경기도,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교사 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내용을 보면 전통미술교육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학생들의 흥미 부족을 가장 높다 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수업시수의 부족, 교사의 지식 부족, 지도방법과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경기도 소재의 a, b, c 중학교, 서울시 소재의 a, b, c 중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을 실시하였고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흥미, 경험, 인식 관련

6)김 엽, “전통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자료 제작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2009), p.8

12문항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표 1]을 보면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 조사(N=404)⁷⁾

설문내용	항목내용	응답자 수	비율
전통미술 감상 수업에 대한 흥미를 느끼나요?	매우 그렇다	25	6.19
	그렇다	103	25.50
	보통이다	112	27.72
	그렇지 않다	109	26.98
	전혀 그렇지 않다	55	13.61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다양한 전통미술의 체험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전통미술도 재료적 접근부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이 뒷받침된다면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강난영, (2012)은 전통미술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Y중학교 2학년 총 269명을 대상으로 전통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통미술은 옛것이라는 지배적인 의식이 있을 뿐 수업시간을 통한 전통미술의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8명(25%), 이해 부족(175명, 66)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미술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적 경험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⁸⁾.

송인혜, (2010)의 전통미술 이해도 영역에서 전통미술의 관심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 40명중 전통미술에 대해 관심이 높은 아동은 13%, 보통은 44%, 관심이 없다고 한 아동은 43% 로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전통미술에 대한 경험과 표현의 기회가 적고 재료용구가 충분히

7) 이상화, “조선후기<책가도>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6), pp.35-37.

8) 강난영, “전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효율화 방안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16.

구비되어있지 못하다 하였다.

이렇듯 전통미술교육의 현황을 보면 전통미술은 교사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흥미도가 낮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대부분 주로 접하고 영향을 받은 미술문화가 서양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주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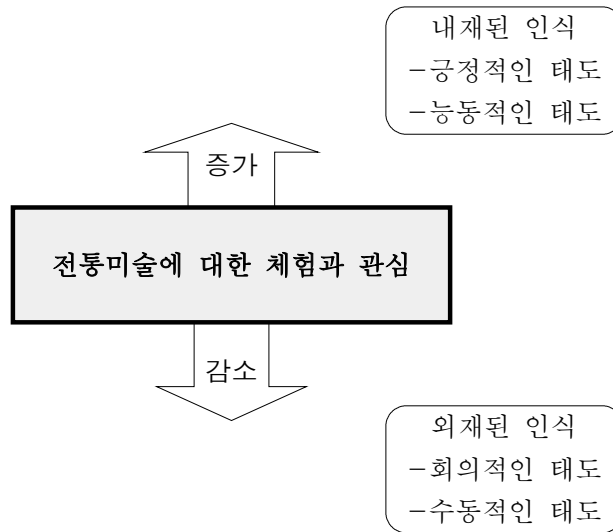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을 보면 ‘옛 것, 고루한 것, 과거, 역사, 고리타분하다, 재미가 없다, 아날로그’ 등의 인식이 높다. 이것은 전통미술이란 이미 지나간 것으로 현재 나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단순히 모방하는 수업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9) 하지만 전통미술은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인식만 있고 그것을 발전하지 않으면 문화적 정체성과 일상의 삶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왔던 민족적인 미의식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전통미술의 교육은 일반적인 미술교육의 특성인 조형성, 창의성, 정서성을 모두 내포할 뿐만 아니라 전통성이라는 고유한 특성 또한 갖고 있다. 또한 이미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이 현대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통미술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세에 어떤 공감을 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녀야 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전통미술을 학습하는 것은 과학화, 세계화 되어가는 시대에 학생들에게 미술, 문화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문화의 기초적 토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전통미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전통미술을 재구성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충분한 체험적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최영순, (2016)의 전통미술에 대한 체험 및 관심의 정도에 따라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9) 최명숙, “미술과 수업에서 한국화 한지민예품 교육-2009 개정 초등 3,4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지』, vol.37, (2014), p.46.

[표 2]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표



이를 보면 전통미술에 대한 체험과 관심이 증가할수록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체험에 의한 전통미술에 대한 가치판단이 내재된 인식은 전통미술의 외형적, 소재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정신의 이해와 삶에 집중한다고 보았다. 반면 그 관심이 감소할수록 전통미술은 외재된 인식으로써 타자의 관점과 지식적인 것으로 전통미술을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는 전통미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관심을 통해 변화 할 수 있다¹⁰⁾.

서양미술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통해 지식을 쌓는 반면, 고유의 전통미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알아가려는 학생이 적다. 우리 문화의 체험과 이해는 앞으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과 자긍심을 길러주고 자신감을 얻을 것이며 창조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¹¹⁾

10) 최영숙, “초등교사의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pp.106-107.

11) 박선영, “전통미술 감상을 통한 한국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학교 미술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p.5.

인성교육의 특징과 인성요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 ‘ 각 개인이 지닌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 이라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성의 개념은 개성, 성격, 인간성, 심성, 도덕성 등 추상적이며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인성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성격으로, 정신분석학 분야에서는 인격으로 통용되고 있다.¹²⁾ 이를 종합해 보면 인성은 각 개인이 가지는 태도와 가치관, 사고, 마음의 본바탕으로 볼 수 있다.

인성의 일반적인 의미를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며 선천적,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개개인의 성품뿐만 아니라 살아가는데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인지적 사고와 가치를 결정하고 경험, 학습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고 본다. 즉 개인의 특성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복잡적이며 구조적으로 인성 형성이 된다.

이러한 인성의 개념은 외부적인 요소에 관점을 두는지, 내부적인 요소에 관점을 두고 보는지에 따라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진다. 한국교육학회, (1998) 는 인성은 사람의 마음의 바탕이 어떠하며, 사람 된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람의 마음과 사람됨 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인성이 구성된다고 보았다¹³⁾. Guilford는 인간의 모든 신체적, 개인적, 정서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인성을 해석하였고¹⁴⁾ Sullivan은 인간의 생활을 특징짓는 인간 상호적 측면이 지속적인 유형이라 인성을 파악했다.¹⁵⁾ 미국 교육부, (2008)은 존중, 공정성, 보살핌 등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 신뢰, 시민성, 책임감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정서적, 지적, 도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질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성이라 보았다.¹⁶⁾ 조셉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에서는 오늘날 중요 인성요소를 [표 3]에서 보여주는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12) 전두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중학교 미술교과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15), p.5.

13)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학회』, (문음사,1998), p.224.

14)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1969), p.18.

15) 황정규, 『교육평가』, (교육출판사,1968), pp.407-408.

16) 양정실 외 4명,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p.12.

[표 3] Josephson Institute의 6 pillars 항목¹⁷⁾

주요덕목	하위덕목	포함요소
진실성 (trust worthiness)	정직함, 올바른 일을 위한 용기, 약속 이행	용기, 충성
존중 (respect)	타인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존중 및 예의, 상대방을 고려하고 문제 상황에서 서의 평화로운 대처, 올바른 언어	인내, 관용
공정성 (justice)	열린 마음, 경청, 모든사람 에게 평등한 자세, 규칙을 지킴	수용성, 진실성
책임 (responsibility)	맡은 임무 수행, 스스로 통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 책임감 있는 행동, 끈기 있는 태도.	인내, 절제, 신중
배려 (caring)	타인에게 친절하고 공감하는 능력, 용서하고 감사하는 자세	관용
시민의식 (citizenship)	사회에 대한 관심과 개선을 위한 참여, 투표권 행사, 법칙 준수, 자원봉사, 사회봉사 참여	자연사랑

이렇듯 인성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결국 좁게는 자기존중의식, 자신감, 자기표현, 도덕성, 창의성, 절제, 수용 등 개인 내부에서 올바른 인성 형성을 함으로써 더 나아가 타인존중의식, 타인에 대한 배려, 정의감, 사회연대의식, 공공 질서의식, 협동정신 등 외부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성을 크게 도덕성, 사회성, 감성으로 인성의 3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 도덕성 차원에서는 정직, 책임을 핵심덕목으로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무

17) 조셉슨 연구소, <http://josephsoninstitute.org/sixpillars.html/>

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을 도덕성 인성으로 보았다. 사회성 차원에서는 공감, 소통이 핵심덕목이며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타인의 감정, 생각, 관점을 이해하며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소통하는 능력이라 보았고, 감성적 차원에서는 긍정, 자율을 핵심덕목으로 보고 자신의 강점, 약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며,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며 실행하는 능력을 감성적 차원에서의 인성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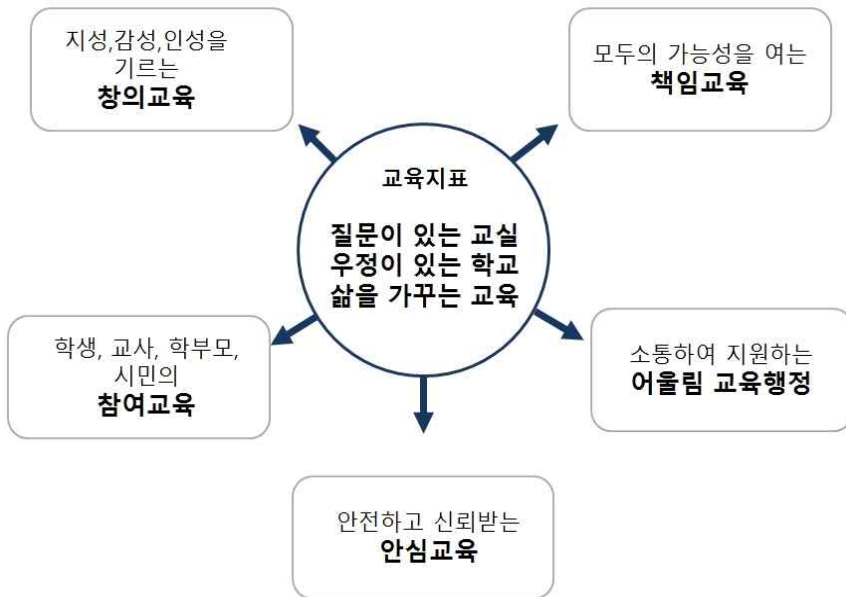
위와 같이 인성은 개인의 성격(personality)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요소가 내포된 행동 및 도덕적 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인성 교육은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개인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 성장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또한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 덕, 체 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고루 길러주어 바람직한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인성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더 나아가 환경 및 생명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협력하는 방법과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을 느끼고 돕는 행동, 타인에 대한 수용과 공감, 웃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예전엔 이러한 인성교육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달하였지만 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 현상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문제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분노조절장애, 이웃 간의 소통결여 및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 할수록 긍정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그러나 과학기술, 산업사회의 발달은 인지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교육환경을 만들었고 이는 정서적 측면의 발달을 고려

하지 못했다.¹⁸⁾이러한 문제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감능력, 갈등해결능력, 소통능력, 정의, 관용 등의 인성 핵심역량을 제시하였고,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은 존중, 책임, 배려, 참여, 정의, 협동, 미적감수성, 소통 등의 인성덕목을 기준하여 미술, 음악, 국어, 도덕, 사회의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17 인성교육 시행 계획으로 경쟁 논리를 넘어서 타인과 협력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녀야할 성품과 역량(존중, 배려, 소통, 공감, 협동, 책임, 협력, 공정성, 공공선)을 제시하였다.

[표 4]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인성에 관한 교육방향이다.¹⁹⁾

[표 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인성교육 교육방향



18)김한걸, “미술치료적 접근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p.15.

19)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인성교육 시행 계획 (협력적 인성을 지닌 서울학생)
<http://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여기서 적용되는 인성을 보면 개인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사회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동기는 자아형성과 사회적 능력 및 정서발달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비롯하여 개인의 정서가 급격히 발달한다. 개인의 정서 및 자아의 발달은 개인 자신에서 시작하여 경험과 관찰, 탐색, 상호작용을 통해 점점 외부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어간다. 이 시기의 올바른 인성교육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성숙한 인간상 도달에 발판을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들의 전통미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인성요소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과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 2절 미술치료교육을 통한 인성함양

현재 미술을 통한 인성함양의 방법으로 미술치료교육이 있다. 미술치료교육이 인성함양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술치료교육은 무엇이며 인성함양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1. 미술치료교육의 개념

‘미술치료교육’은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융합된 개념을 뜻한다.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1940년대에 실천적 미술교육자인 Cizek(1865-1946), Read, Lowenfeld 를 중심으로 아동중심교육이 미술교육분야에 자리매김을 하고 이후 Lowenfeld 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아동미술교육을 전개한다. 그는 미술활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1947년에 미술활동이 청소년기의 긍정적 성장발달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표현과 개성 표현을 장려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창조적 정신의 성장 (Creative and Mental Growth)』을 발표하였다. 이후 개정3판 (제12장)에서 미술교육의 치료적 측면에 대해 연구한 ‘미술교육치료(Art Education Therapy)’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게 된다.(Lowenfeld, 1957; Drachnik, 1976)²⁰⁾

‘미술치료교육’은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개념이 종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선 ‘미술치료’와 ‘미술교육’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술치료(Art therapy)라는 용어는 Ulman이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미술치료가 시각예술이라는 측면을 활동하여 인격의 통합이나 재통합을 돕고, 재활, 교육, 정신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것이라 하였다. 미술치료(Art Therapy)는

20) 이경원,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표현을 위한 색채 중심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홍익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5), p.4.

예술치료(Arts Therapy)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술 치료는 미술 외에 여러 장르의 예술분야를 아우르는 치료 기법이고, 미술치료는 시각적인 이미지, 미술매체, 창작활동 그리고 개인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창작물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이용하는 치료기법이며,²¹⁾미술이라는 활동을 스스로 주도하여 하는 능동적인 치료방법이고 이것은 내면의 작업이기에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으며 스스로 참여가 곧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미술치료를 정의하였다. 즉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서 학습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법 이다.

미국 공인미술치료사 이자 피츠버그 의과대학 정신과 부교수인 Judith A. Rubin 는 우리 생각의 많은 부분이 시각적이며 꿈이나 환각 같은 비정상적인 것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암호화된 것이 이미지 형식이며 미술치료는 내면의 이미지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창작의 과정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몰두할 때 치료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물을 통해 내면의 요구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서적, 심리적 문제들은 그 발생이 언어 전 단계 수준에서 왜곡되고 고착되며 미술치료는 혼란된 내면을 표현하고, 보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비언어적 치료방법이라 하였다.

미술활동을 통한 심리치료가 가능한 이유는 미술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이 개인의 사고, 내면세계, 공간 활용 등의 요소를 발달시키고 구체적인 형태로 심리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 특성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술이 심리 치료적인 기능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 첫째, 미술의 본질 이다. 미술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원초적인 본질적 활동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그 예로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예술표현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의지, 내면을 사고하고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본능으로 볼 수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정신활동이라고 여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통찰로 볼 수 있다.

둘째, 미술의 상징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표현이다. ‘이미지’는 비언어적 방식으

21) 송행화, “아동의 인성교육을 위한 미술치료의 방법과 실제”,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10.

로 학습자의 내면과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언어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미술활동에서 나타나는 상징들은 작품 속에 자연스레 드러나게 된다. 김한결, (2014)은 이러한 심상표현활동은 학습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라면, 미술활동은 마음을 열고 내면의 에너지를 표출하여 내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안정감을 되찾는 효과를 통해 인간의 성품 회복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니아체(Kniazzeh, 1981) 는 미술치료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 보다 심층적 경험을 표현하기에 더 좋은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이 과정 자체가 창조적 활동으로서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조직화하는 것은 정신기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줌으로 치료적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렇듯 미술치료는 창조하는 과정에서 심리 치료적 기능을 통해 효과가 있으며 성장, 자기표현, 갈등의 해결, 자신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미술교육은 사전적 의미로 조형적인 미의표현 및 감상력 따위를 기르는 교육. 시각적, 공간적 예술 활동에 관한 이론적·실천적인 교육을 총칭하며 미술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형성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순수한 미적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²²⁾ 미술교육은 이론과 기술적인 요소를 가르치며 미적가치를 평가하고 단계적인 지도를 필요로 한다. 미술교육과 미술치료의 차이에 대해 보면 먼저 미술교육은 미적인 기술에 대한 훈련을 교육의 목표로 볼 수 있고 미술치료는 기술의 습득 보다는 인격의 성장이 우선시 된다. 또한 미술교육은 목표의 도달을 위해 계획된 수업방식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술교육은 학습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적, 심리적인 문제 해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미술교육에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는 시도는 학습자의 잠재된 창조성을 발달시키고 기술, 지식습득 측면 보다는 자연스러운 “놀이”로서 받아들이며 창조적 활동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과 자아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미술치료교육은 미술교육을 미술의 치료적 측면을 융합한 새로운 하나의

22)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사전 (美術教育),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690&cid=42126&categoryId=42126>

방법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아동들은 미술치료교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부정적인 감정, 정서를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화의 효과를 얻는다.

둘째, 언어적 표현이 힘든 아동들에게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아동 스스로가 주도하여 미술재료를 선택하고 작품의 제작과정을 통해 완성함으로써 성취감, 만족감 등을 느끼며 자아개념을 강화, 인식할 수 있다.

넷째, 기술, 지식습득만의 미술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놀이’로서 느끼게 하여 미술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미술치료교육은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이다. 미술교육에 뿌리를 두고 학습자의 정신, 신체 및 영혼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심리 치료적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다.

2. 인성함양과 미술치료교육의 연관성

미술치료가 과거에는 정서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 특수아동을 대상을 대상으로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현재 미술치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접목시킨 미술치료교육의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아동들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주의력 결핍, 학습장애, 정서발달의 장애, 과잉행동 등 여러 사회적 문제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교육은 지식위주의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적측면의 문제들을 대처하고 예방,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를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다른 어느 과목보다도 치유적인 기능이 탁월하고 아동의 인격 발달에 직결되는 미술교육을 통하여 미술이 가지는 치유적인 기능을 활용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활용한 미술교육을 교육환경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시도의 근거가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의 중심이 변화하듯이 인성의 주요 덕목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였다. 현대에는 배려, 책임감, 정의, 공정, 존중, 진실성, 인내, 창의성, 시민의식, 심미성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덕목들과 연관성이 있는 미술의 치료적 효과요소를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자아 존중감’, ‘사회성’, ‘자기표현’으로 선정하여 분석해 보았다.²³⁾

[by 5] 아동의 미술치료 효과 요소(자아존중감, 사회성, 자기표현)와 연관된 덕목

아동 미술치료 효과요소	정의	연관 덕목
자아 존중감	<p>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p> <p>Coopersmith(1967)²⁴⁾에 의하면 개인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유능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감 있는 생활태도를 갖고 타인으로부터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자아존중감이라 정의하였다.</p> <p>즉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평가이며, 더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생활해가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p>	<p>책임 (Responsibility)</p> <p>진실성 (Trustworthiness)</p> <p>존중 (Respect)</p>

23) 김은정,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술교육과 치료적 교수법 접목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12) .p.23.

<p>사회성</p>	<p>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돕고, 나누고, 협력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성향.</p>	<p>존중(Respect) 배려(Caring) 시민의식 (Citizenship)</p>
<p>자기표현</p>	<p>자기표현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사회생활과 원만한 상호작용에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자기표현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의 의사를 진실 되게 명확히 표현하며, 자신의 의사와 다른 변명을 하지 않은 성향</p>	<p>진실성 (Trustworthiness) 공정성(Justice)</p>

위 표는 인성교육의 덕목을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동의 미술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여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부분 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24)Coopersmith(1967)-자아존중감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도구.

제 3절 선행연구 고찰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활용한 아동의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위에서 살펴본 미술치료교육과 인성함양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선행연구를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설정 하였다.

1. 미술치료와 인성함양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미술치료가 과거에는 정서적 발달이 미흡한 아동, 특수아동을 대상을 대상으로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현재 미술치료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접목시킨 미술치료교육의 방법이 대두되고 있다. 미술치료교육을 통한 아동의 긍정적인 인성 형성 선행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미술치료’, ‘집단 미술치료’를 검색하고 인성요소가 포함된 논문5편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논문 선정은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검증을 하였는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총 5편의 논문에 대한 내용은 [표 6] 과 같다.

[표 6] 미술치료, 집단미술치료를 위한 선행연구조사 표

	제목 (년도)	저자	개인/집단 활동	차시의 수	차시 시간
1	미술 치료적 접근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인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입체조형 만다라를 중심으로-	박진희	개인+집단 활동	14	50
2	인성의 형성과 치료를 위한 미술교육 사례 연구-미술 감상을 통한 인성치료를 중심으로.	최보견	개인+집단 활동	20	120

3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성이 낮은 아동의 자기표현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경은	집단 활동	12	80
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술교육과 치료적 교수법 접목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은정	개인+집단 활동	10	?
5	협동화를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례연구.	신미경 오승진	집단 활동	14	60

박진희²⁵⁾는 입체조형 만다라를 이용하여 아동의 창의, 인성 발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M초등학교 1학년 아동 29명을 대상으로 주 3회, 회기 당 50분씩 총 14회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효과검증을 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창의, 인성요소를 선정하고 인성요소에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접목시켜 프로그램 구성을 하였고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KEDI 창의적 인성 검사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하였고 사전, 사후의 차이를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접목시킨 만다라 활동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기에 대한 탐색, 인내, 자기확신, 독립성 등의 평균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보견²⁶⁾은 미술감상을 통하여 인성의 형성과 치료를 위한 미술교육 사례연구를 위해 2010년 05월부터 12월까지 강릉에 소재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13명을 대상으로 매달 2회 2시간씩 20차례 프로그램 실시를 하였다.

인성의 구성 요소로는 정직, 약속이행, 용서, 책임, 배려심, 도덕적 판단력, 의사

25)박진희, “미술치료적 접근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 인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입체조형 만다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p.94-95.

26)최보견, “인성의 형성과 치료를 위한 미술교육 사례 연구-미술감상을 통한 인성치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2011), pp.301-332.

결정능력, 행동실천력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미술 감상 교육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고 관계형성에 있어 만족스럽고 협동적이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도덕적 판단력, 자아 존중감, 자기 표현력이 상승한 것을 확인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인성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였다.

정경은²⁷⁾는 집단미술치료를 활용하여 사회성이 낮은 아동의 교우관계와 자기표현의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전라북도 정읍시에 소재한 J초등학교 5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11명씩 나누어 비교 분석 하였다. 실험설계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를 사용하였고 주1회 80분간 1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처리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하고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각 회기별 프로그램 종료 후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질적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성이 낮은 아동의 교우관계가 개선되고 자기중심성, 사회적 억제, 냉담 부분이 감소되었으며 적극적인 자기표현능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은정²⁸⁾는 인성교육을 위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교육 프로그램과 치료적 교수법을 접목시켜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6세에서 12세 아동 12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10회기를 실시하였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술발달, 자존감, 사회성, 표현력을 삼았다. 연구방법으로 인성을 강조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치료적 교수법으로 진행한 집단과 일반적인 미술 교수법으로 진행한 두 집단으로 나누고 사전, 사후에 아동의 표현력, 사회성, 자존감 척도를 통해 기술, 정서발달의 변화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미술프로그램에 치료적 교수법으로 교육을 받은 아동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표

27)정경은, “집단미술치료가 사회성이 낮은 아동의 자기표현능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교육상담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pp.37-53.

28) 김은정,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술교육과 치료적 교수법 접목 효과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2012), P.79.

현력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성발달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미술 교수법이 아닌 치료적 교수법을 적용한 미술교육이 필요하고 교사에게 치료적 교수법의 숙지가 필요하다.

신미경, 오승진²⁹⁾은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통한 아동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J시에 소재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뢰된 11~13세 아동 4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검사를 ‘대인관계변화 척도’와 ‘KSD검사’를 통하여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대상자에게는 60분씩 주1회, 총14회기에 걸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대인관계 변화척도가 내담자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만족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 부분이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만족감, 타인에 대한 친근감, 개방, 이해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소수의 특정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

선행연구 사례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인성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를 검증한 사례를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미술치료교육은 인성함양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미술도구를 보면 서양의 미술도구 활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미술치료교육이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도움

29)신미경, 오승진, “협동화를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행동문제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례연구”, 『한국아동미술학회지』, vol.13, no.1, (2014), pp.33-50.

을 준다는 검증된 사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통미술을 접목시켜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3장 전통미술을 활용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개발

제 1절 프로그램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논문의 연구는 전통미술 중심의 미술치료교육이 아동의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저학년 만 8~10세 아동 20명을 선정하였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C여자 중학교 교사와의 면담결과 이 지역은 경제적 여건이 광주 전체평균의 미만에 해당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학교에 필요한 미술도구는 지원받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술의 사교육 비용이 낮고 학교에서 받는 수업 외에 다른 변인이 적다는 점에서 이 지역아동을 선정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선정에 있어 활동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고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으며 사전 설문지 조사를 통해 책임감, 자아존중 및 자기결정,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 요소의 문항의 평균점수 이하인 아동 20명을 선정하였다.

만 8~10세의 아동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 따르면 사물들 간의 관계성을 통하여 사고를 확장해 나가며 가역적 사고가 가능하여 보존 개념, 서열화, 분류가 가능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또한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에 의하면 이 시기의 아동은 전인습적인 사고 수준의 도덕성 발달단계인 1,2단계이며 행위의 결과로 인한 처벌 및 보상에 의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한 긍정적인 행위 및 행위의 의도, 사회적 질서 유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고를 가지는 도덕성 2단계 수준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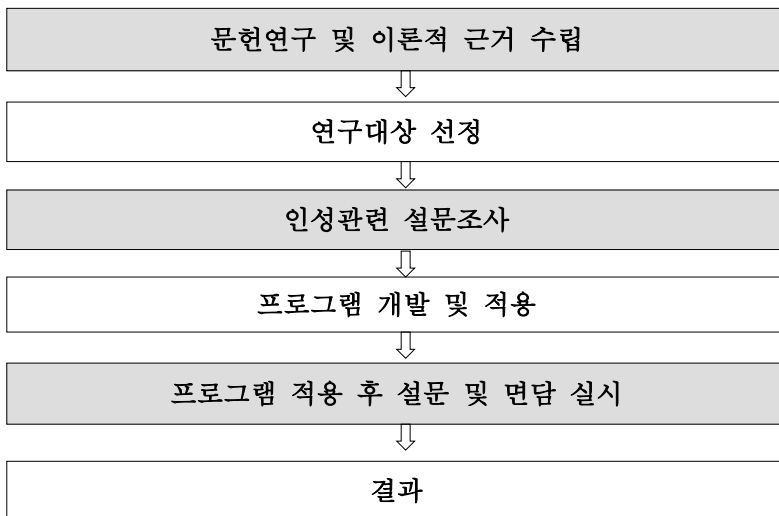
대상 선정에 있어 위를 바탕으로 만8~10세의 아동을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통미술을 활용한 미술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인성함양에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함양 및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한다. 이후 인성의 요소와 전통미술을 통한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하였다. 프로그램은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접목시켜 7회기의 개별 활동, 2회기의 집단활동 총 9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총 18차시, 주 2회 40분 수업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방법으로 설문 조사와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방안으로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대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설문의 부족한 부분인 대상자의 해석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다. 연구의 절차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연구절차



제 2절 프로그램 설계

전통미술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인성의 요소와 미술 치료적 기능의 연관성을 갖도록 설정하고 전통미술의 재료적 특성을 보다 쉽게 접근시키고자 단계별로 심화되도록 설정하였다. 크게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었으며 초기에는 자기를 개방하고 전통미술에 대한 재료적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으며 중기에는 자기를 표현하고 재료를 응용하고 후기에는 자기에서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전통미술재료 활용을 심화시키는 단계로 프로그램을 설계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미술수업과정에 따라 주 2회, 월 8회, 총 18차시, 40분 수업으로 설계하였다.

1. 프로그램 목표

본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전통미술에 대해 거부감 없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며 ‘놀이’로서 받아들여 아동으로부터 동기 유발을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의식형성에 한걸음 나아가고 아동간의 친밀함을 형성하며 단순한 활동으로 인한 물입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출해 자기표현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중기 단계는 자기를 표현하고 재료를 응용하여 활동하는 단계이다. 전 단계에서는 전통미술 재료를 탐색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재료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를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과 문제를 인지하여 스스로 해결을 함에 따라 근면, 인내, 자기결정, 자기조절을 할 수 있다. 또한 좀 더 심도 있는 활동을 완수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지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착을 통해 자아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후기 단계에서는 공동화 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집단원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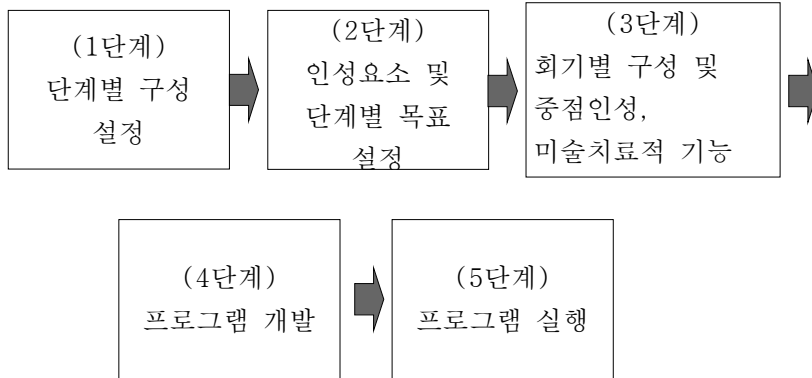
의 존중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집단 속에서 또래 아이들과 과제를 해결하고 소통하며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고의 확장과 협동, 배려, 존중 등의 인성요소들이 자연스럽게 함양 될 수 있다. 또한 어느정도 익숙해진 미술재료들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을 할 것이며 더 이상 전통미술이 어렵고 고리타분하며 낯설다는 인식이 변화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전통미술활동 경험을 제공하고 미술의 치료적 기능과 인성요소를 연관시켜 정신적, 심미적, 도덕성, 신체적 부분이 올바르게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2. 프로그램 설계 모형

본 프로그램의 설계 모형은 [표 8]과 같다. 프로그램 계획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5단계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용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1단계에서는 초기, 중기, 후기 로 단계 설정을 하고 2단계에서는 단계별로 목표와 어떠한 인성요소 중점을 둘 것인가 설정 하였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단계별 목표에 따른 회기별 활동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인성 및 미술 치료적 기능을 연관성 지어 적용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설계를 바탕으로 총9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토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

[표 8] 프로그램 설계 모형



3. 프로그램 지도 방안

전통미술에 대한 아동들의 흥미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성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들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활동방안 및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높인다. 또한 능동적인 자세로 자유로운 분위기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는 아동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재료를 선택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며 자아개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 2절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 개발

[표 9] 프로그램 개발 구성 표

단계	회기 (차시)	활동주제	활동내용	미술 치료적 기능	인성요소
(초기) 자기개방 및 재료 탐색	1 (2)	나는 누구일까요 ?	자신의 특징을 살려 자화상 표현하기	자기개방을 통한 자아인식	진실성 자기존중
	2 (2)	감사 꽃다발 만들기	다양한 색의 한지를 이용하여 꽃다발 만들기	행위에 몰입하여 감정표출	인내, 자기조절
	3 (2)	나만의 먹그림	먹을 이용해 창의적인 표현하기	감정해소	자기존중
(중기) 자기표 현 및 재료응 용	4 (2)	거미줄 난화	먹물을 불어서 생긴 형태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몰입을 통한 감정 해소 및 성향표출	자기결정
	5 (2)	한지 조각보 만들기	조각보에 대해 알고 다양한 색의 한지를 오려붙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자기탐색	근면 자기결정 인내
	6 (2)	감정 탈 만들기	전통 탈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후 원하는 자신만의 감정 탈 만들기	성향 및 무의식 표출	자기결정 인내
	7 (2)	까치 호랑이	민화“까치 호랑이”를 보고 재구성 하여	자기갈등 조절 및 해소	인내 자기조절

		재구성 하기	그리기		근면
(후기) 타인에 대한 배 려 및 재료 심화	8 (2)	우리의 우주 (공동화)	떡과 소금을 이용해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 우주 꾸미기	공동화를 통한 긍정적 감정 형성	배려, 존중 책임 및 소통
	9 (2)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동화)	떡을 이용해 그리고 찍어서 도시 표현하기	공동화를 통한 긍정적 감정 형성	배려, 존중 책임 및 소통

본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구성된 주제에 맞는 활동을 하고 회기별 마지막에 인성 요소와 연관된 질문을 통한 자기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아동의 작품의 질을 평가하는 시간이 아닌 회기별 적용한 인성요소들이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의 인성함양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아동 스스로의 평가이고, 이 활동을 통해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기평가 활동은 상황에 따라 기입, 발표 또는 면담으로 한다.

2.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

개발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회기별로 보여주어 활동의 주제선정 및 활동내용, 주요 인성요소 선정, 미술 치료적 기능의 연관성의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초기 단계

[표 10] 프로그램 초기 단계

단계	회기 (차시)	활동주제	활동내용	미술 치료적 기능	인성요소
(초기) 자기개방 및 재료 탐색	1 (2)	나는 누구일까요?	자신의 특징을 살려 자 화상 표현하기	자기개방을 통한 자아인 식	진실성 자기존중
	2 (2)	감사 꽃다발 만들기	다양한 색의 한지를 이 용하여 꽃다발 만들기	행위에 몰입 하여 감정표 출	인내, 자기조절
	3 (2)	나만의 먹그림	먹을 이용해 창의적인 표현하기	감정해소	자기존중

먼저 초기단계는 프로그램의 시작 단계로 아동들이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개방하기 시작하고 전통미술에 대해 거부감 없는 접근을 위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활동중심으로 계획하였다.

1회기의 ‘나는 누구일까요?’는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특징을 생각해보고 그 특징을 살려 먹물과 붓을 이용해 자화상을 그리는 활동을 한다. 활동에 들어가기 전 교사는 아동들에게 먹의 특성, 붓의 사용법등을 보여준다. 먹의 농도에 따른 효과나 번짐을 이용하기도 하고, 필선에 따른 효과 등을 보여주어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들은 활동을 들어가기 전 자신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갖고 진실성 있게 자신을 그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자아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을 할 수 있다 활동이 끝나면 아동들은 자화상을 발표하여 다른 또래아동들 에게 자신에 대해 개방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2회기의 ‘감사 꽃다발 만들기’는 전통미술재료인 한지를 가늘게 찢거나 구기거

나 일정한 패턴으로 찢어 꽃송이를 만드는 활동이다. 여러 색의 한지들 중에서 아동이 주도적으로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꽃송이를 만든다. 찢거나 구기거나 하는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행위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놀이에서의 몰입의 특성이 나타나며 그것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놀이가 아닌 어떠한 목적으로부터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활동으로서 아동들에게 쾌감을 주고 감정의 해소를 가져다준다(최명숙,2014). 또한 손을 사용하여 구기거나 찢는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자극을 주고 관심을 주어 새로운 감수성을 경험하게 된다.

3회기의 ‘나만의 먹그림’은 먹과 화선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제한 없이 아동이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교사는 먹을 이용하여 물체를 찍거나 손으로 그리거나 풀라주를 하는 등 아동의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시한다. 아동은 스스로 작품의 주제를 정하고 표현에 따라 의미부여를 하며 활동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고 자신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고의 유연함을 가져오고 아동이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독창성을 경험하게 된다.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 시간을 통해 아동은 타인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성취감과 자기만족을 얻을 수 있다.

-프로그램 중기 단계

[표 11] 프로그램 중기 단계

단계	회기 (차시)	활동주제	활동내용	미술 치료적 기능	인성요소
(중기) 자기표 현 및 재료응 용	4 (2)	거미줄 난화	먹물을 붙여서 생긴 형태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몰입을 통한 감정 해소 및 성향표출	자기결정
	5 (2)	한지 조각보 만들기	조각보에 대해 알고 다양한 색의 한지를 오려 붙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자기탐색	근면 자기결정 인내

6 (2)	감정 탈 만들기	전통 탈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 후 원하는 자신만의 감정 탈 만들기	성향 및 무의식 표출	자기결정 인내
7 (2)	까치 호랑이 재구성 하기	민화“까치 호랑이”를 보고 재구성 하여 그리기	자기갈등 조절 및 해소	인내 자기조절 근면

중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보다 심도 있는 자기표현활동과 전통미술재료의 탐색에서 더 나아가 재료응용을 하여 활동한다.

4회기의 ‘거미줄난화’는 미술치료의 난화방법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프로그램이다. 난화는 누구든지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미술치료사들이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내담자에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기에 어려움과 부담감이 있는 아동에게 먹을 도화지에 떨어트려 부는 방식으로 형태적인 것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놀이로서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나온 우연적인 형태위에 덧그리거나 색을 입혀 구체적인 형태를 표현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형태, 색채, 구성들은 개인의 특성, 감정 등을 내포하기도 하고 경험, 문화, 환경 등이 반영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의 상상하여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데 효과가 있다. 작품의 해석은 색이나 형태의 일반적인 상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아동의 환경과 상태에 따라 의미되는 것이 다를 수 있게 때문에 면담방식을 통하여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5회기의 ‘한지 조각보 만들기’는 한국의 전통 조각보에 대한 제시를 통하여 아동들의 관심을 이끌고 인지를 가능하게 한다. 조각보는 공간 구성미를 지녔으며 정형화되지 않은 색채감과 구성미로 독특한 예술성을 지닌다. 또한 과거에는 남은 천 조각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생활용구였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하나의 인테리어 소품이나 예술작품, 공예의 한 장르이자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와 소통하고 전통이 담고 있는 정신적 유산의

계승과 현대적으로 재해석 된 산물이다. 아동들은 이러한 조각보에 대해 알고 다양한 색의 한지 조각들은 가지고 오리거나 패턴을 그려 배치, 구성하여 붙이는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은 자연스럽게 색채배치를 통한 공간 구성의 미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회기6의 ‘감정 탈 만들기’는 한국전통의 탈에 대해 알고 원하는 표정의 탈 가면을 만드는 활동이다. 작품제작에 들어가기 전 감정과 다양한 표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을 한다. 이야기 활동을 바탕으로 만들고자 하는 탈 가면의 스케치를 하고 풍선에다 한지를 붙여가며 가면의 틀을 만들고 다양한 재료로 자유롭게 꾸민다. 아동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개성과 감정을 인지하고 타인에게 드러냄으로서 감정의 표출과 또 다른 나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다. 이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미숙한 아동들에게 자아탐색에 대한 경험을 제공해 준다.

회기7의 ‘까치 호랑이 재구성하기’는 한국 전통의 민화인 까치호랑이에 대해 보여주고 아동은 까치호랑이를 재구성 하여 먹과 한국화 물감으로 그리는 활동이다. 한국화 재료에는 먹 이외에도 색을 지닌 분체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체품으로 한국화 물감을 제시하여 사용법을 알게 한다. 민화와 재료, 작품의 예시를 설명한 후 아동들은 까치호랑이를 재구성 하여 그린다. 이 회기에서는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됨에 따라 아동은 인지 및 기술적인 측면을 습득하고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인내와 자신을 조절하며 해소의 쾌감을 얻는다. 활동 후에 완성된 작품을 벽에 전시하여 감상한다. 단순히 작품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전시를 하고 감상을 하는 활동은 아동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프로그램 후기 단계

[표 12] 프로그램 후기 단계

단계	회기 (차시)	활동주제	활동내용	미술 치료적 기능	인성요소
(후기) 타인에 대한 배 려 및 재료 심화	8 (2)	우리의 우주 (공동화)	먹과 소금을 이용해 바 탕을 만들고 그 위에 다양한 재료를 활용 우 주 꾸미기	공동화를 통 한 긍정적 감정 형성	배려, 존 중 책임 및 소통
	9 (2)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공동화)	먹을 이용해 그리고 찍어서 도시 표 현하기	공동화를 통 한 긍정적 감정 형성	배려, 존 중 책임 및 소통

프로그램 후기단계는 전통미술재료를 창의적으로 응용, 활용의 심화과정과 공동화를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및 아동들의 배려, 존중, 소통의 인성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아동 개인의 생각과 개성을 미술활동으로 표출하고 집단 활동을 하여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고 활발한 사고가 촉진되어 창의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다.

회기8의 우리의 우주는 먹과 소금이 만나 발생하는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먹을 이용해 그리는 표현방식 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흥미를 높인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 제시는 아동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시켜준다. 화선지에다 먹을 다양한 농도로 칠하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려 먹이 흡수되면서 나타나는 형태에 아동들은 한국화 물감, 한지를 포함한 여러 재료들을 활용하여 상상의 우주를 표현한다. 한 화면에 공동으로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공동화 활동은 자기중심성에서 벗

어나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성을 이끌고 존중, 배려,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회기9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전지에다 표현할 도시의 전체적인 모습을 구상하고 각자 한지에다 부분요소를 표현하여 오리고 붙여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활동이다. 전체적인 도시구상은 아동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토의를 하고 교사는 이 상호작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돕고 전체적인 의견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전체적인 도시 구상이 끝나면 아동들은 역할분담을 하여 각자 부분적인 요소들을 원하는 사이즈로 표현하는 활동을 한다. 먹을 이용하여 그리기, 찍기, 뿌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현가능 하며 완성된 결과물을 오려 전지에다 붙인다. 이러한 개인의 결과물로 하나의 공동 결과물을 생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 약속과 집단 안에서의 협동하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관계형성 능력을 키워주어 학교폭력, 왕따 등 문제들을 완화시켜 주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타인과 소통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심미 활동은 사회적 도덕성의 발달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 시킨다. 이러한 공동화 작업이 끝나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은 아동들이 인정과 지지를 통하여 교우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정감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 믿음을 증진시켜주며 사회성을 발달 시켜준다.

제 4장 프로그램 적용 및 기대효과

제 1절 프로그램 적용 사례

본 논문의 연구는 전통미술 중심의 미술치료교육이 아동의 인성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동구에 소재한 만 8~10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0명을 구성하여 회기별 80분, 회기 당 2차시, 총18차시 9회기(미술활동, 활동 후 토의, 피드백, 평가활동 포함)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미술수업은 연계수업 방식이며 1주일에 1회기를 실시하였다.

변화의 측정은 활동 전, 후 실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비교 하고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총 회기에서는 활동에 있어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고 활동 후에 그 규칙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이는 아동이 약속된 것을 잘 이행하였는지에 되돌아보며 자기성찰의 경험을 제공 한다. 활동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1회기 나는 누구일까요?

[표 13] 1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나는 누구일까요?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소개할 수 있다. -먹물을 이용하여 자화상을 표현할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먹물, 한국화 붓, 걸레 접시, 화선지, 시각자료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p>솔직하게 자신을 탐색하고 개방하는 표출활동을 통해 자아인식 및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아 존중감을 얻을 수 있다.</p>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합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재료사용에 대한 시범을 본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먹물과 붓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징을 살려 화선지에 그린다. -먹의 농도를 조절하여 그린다. -필선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그린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그림을 말한다. -완성된 작품을 보며 자신에 대해 발표한다. -친구들의 작품을 보며 피드백을 하고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1회기의 활동과정에서 먹물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20명중 단2명이었다. 재료사용에 있어 낯설어하고 흥미를 보이지 않은 아동들에게 먹의 농도를 조절하여 자유롭게 선을 표현하고 번지는 효과의 시범을 보여주니 집중하여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는 형태에 치중하기보다 특징적인 부분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작품을 다 완성한 후 작품에 대한 발표와 피드백 시간은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작품을 펼쳐놓고 누구인지 맞춘 후 작품의 당사자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아동들은 피드백을 하였다. 또한 오늘의 활동과 활동 전 정한 규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자기평가 시간을 갖는다. 활동시간에 대해 “물을 사용하여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힘들다, 색칠을 하고 싶다, 너무 번져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려지지 않았다, 번져서 웃기게 그려졌지만 재밌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활동의 결과물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나는 누구일까요? 활동 결과물



(2) 2회기 꽃다발 만들기

[표 14] 2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감사 꽃다발 만들기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색 한지를 찢거나 구기거나 오려 나만의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여러 색의 한지, 굵은 철사, 본드, 테이프, 고무줄, 리본 끈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행위의 몰입을 통하여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내와 자기조절을 가능하게 한다.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합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한지 중 원하는 색의 한지를 고른다. -한지를 가늘게 찢거나 구기거나 오려 원하는 형태의 꽃송이와 잎을 만든다. -꽃송이를 굵은 철사에 붙인다. -완성된 꽃을 원하는 형태로 배열하여 꽃다발을 만든다. -작품을 마무리 한다. 	40분
	후 기	<p><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꽃다발을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이야기한다. -완성된 꽃다발에다 선물하고 싶은 대상에게 쪽지를 써 매단다.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2회기 감사 꽃다발 만들기에서는 먹으로 그려 표현하는 활동보다 아동들의 관심과 흥미도가 높았다. 아동들이 많이 접하는 종지와 비슷한 한지를 활용하는 활동이어서 거부감 또한 적었고 가늘게 찢거나 구기거나 원하는 형태로 찢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이어서 아동들은 즐거워하였다. 또한 활동 전에 꽃다발 결과물을 미리 제시하니 더욱 집중하며 꽃송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 스스로 방법을 찾아하는 아동들이 많았다. 꽃다발을 완성하고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마운 마음을 쪽지로 써서 꽃다발에 매는 활동에서 아동들은 적극적으로 임했다. 아동들은 2회기 활동에 대해 “너무 재밌다, 완성된 것을 보니 예쁘고 부모님을 드릴 것 이다, 공룡으로 다발을 만들고 싶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활동의 결과물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감사 꽃다발 만들기 활동 결과물



(3) 3회기 나만의 먹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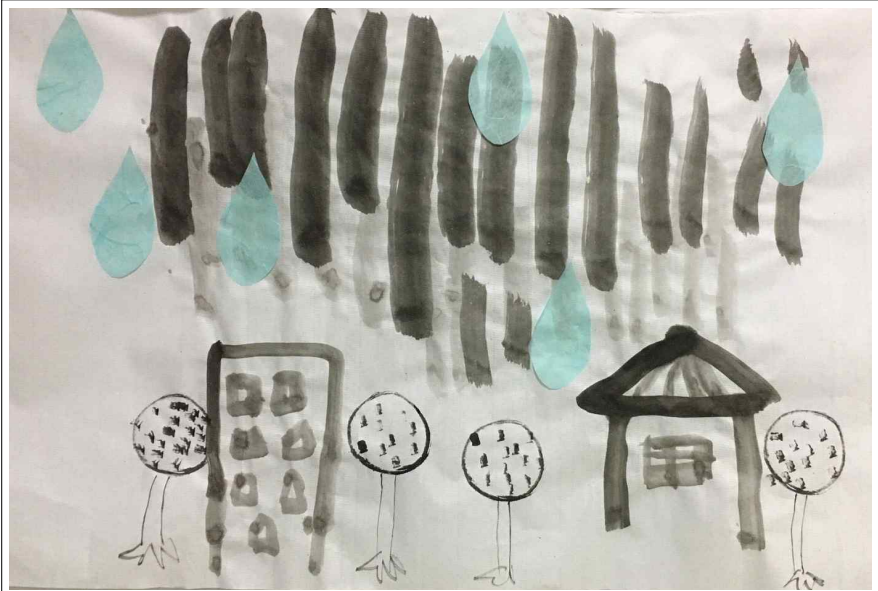
[표 15] 3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나만의 먹그림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을 사용하여 화선지에다 찍거나 그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풀라쥬에 대해 알고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먹물, 접시, 붓, 휴지 심, 나무젓가락, 실, 화선지, 색 한지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p>행위의 몰입을 통하여 감정표출 및 해소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p> <p>추상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유로운 표출을 가능하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p>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합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풀라쥬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자 표현할 작품의 주제를 정한다. -원하는 재료를 먹물에 찍어 화선지에 자유롭게 표현한다. -먹물의 농도를 조절하여 다양하게 표현한다, -원하는 형태로 색 한지를 오려 작품에 풀라쥬를 한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과 이야기 한다.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 하였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20분

3회기의 나만의 먹그림에서는 먹물에다 다양한 재료들을 찍어 화선지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다. 또한 플라쥬 기법을 제시하여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은 주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화면을 구성하여 표현하여 조형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먹물로 형태를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에게 그리는 것 외에도 다양한 표현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높인다. 기술적으로 형태를 표현하는 것에 미숙한 아동들에게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활동은 아동들의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다. 결과물을 보면 형태가 있는 물체를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주제로 행복, 마음속에 비가 내린다, 웃음소리 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동은 이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느낌, 감정 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며 자아에 대한 인식과 환기를 경험하게 된다. 3회기의 활동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부담이 없었고 친구들의 작품이 수수께끼 같아서 재밌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활동의 결과물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나만의 먹그림 활동 결과물





(4) 4회기 거미줄 난화

[표 16] 4회기 활동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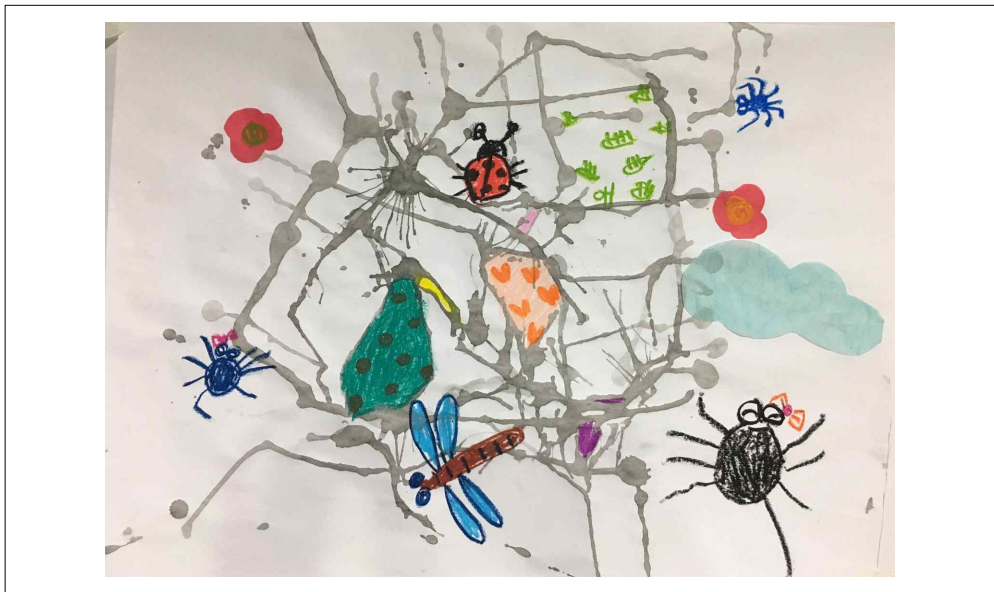
활동 지도안				
주제	거미줄 난화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화지에 먹물을 붙여 거미줄을 표현할 수 있다. -거미줄 그림 위에 나만의 방법으로 꾸며 완성할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먹물, 접시, 빨대, 도화지, 크레파스, 물감, 색 한지, 가위, 풀, 사인펜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p>몰입을 통한 감정 해소 및 내면의 표출이 가능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주도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길러 준다.</p> <p>피드백 활동 및 작품설명 시간을 통해 자아만족감과 집단에 대한 신뢰 및 소통능력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p>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함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화지에 먹물을 떨어트려 빨대로 붙여 선을 표현한다. -먹물의 농도를 다르게 하여 선을 표현한다. -먹물로 표현한 거미줄그림을 말린다. -그림이 마르면 그 위에 나만의 방법으로 거미줄을 꾸민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한다. -친구들끼리 작품에 대해 피드백 한다. -오늘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20분	

4회기 거미줄 난화는 미술치료의 난화 방법을 응용한 활동이다. 아동은 도화지에 먹물을 떨어트린 후 빨대로 불어 나타나는 우연적인 효과를 바탕으로 그 위에 자유롭게 꾸며 나만의 거미줄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먹물을 불어서 표현하는 방식은 아동들에게 그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놀이로써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스트레스 해소의 경험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이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무의식의 표현과 의식의 표현이 조화를 이루어 결과물을 만들어냄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완성된 작품은 전시를 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며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활동을 한다. 작품을 전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은 자아만족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드백 활동을 통해 집단 속에서 신뢰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활동에 대해 아동들은 “먹물을 불어 그리는 것이 재밌다, 징그러운 거미가 아닌 예쁜 거미와 멋진 거미줄을 표현했다, 친구들과 같이 불어서 해도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4회기의 활동 결과물은 <그림 4> 와 같다.

<그림 4> 거미줄 난화 활동 결과물





(5) 5회기 조각보 만들기

[표 17] 5회기 활동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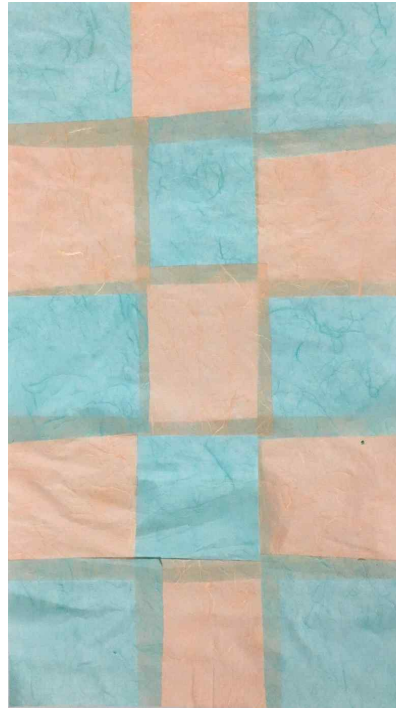
활동 지도안			
주제	한지 조각보 만들기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각보에 대해 알 수 있다. - 색 한지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조각보를 만들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색 한지 조각, 풀, 가위, 색연필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p>자신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근면, 자기결정, 인내의 인성요소를 발달시킬 수 있다.</p> <p>아동 스스로 사고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기 효능감과 만족감,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p>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함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인사를 한다. -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 프로그램 활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조각보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형태의 조각보를 스케치 한다. - 색 한지조각을 원하는 형태로 자를 수 있고 패턴을 그릴 수 있다. - 원하는 색 한지조각을 이용하여 조각보 형태를 나타낸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발표한다. - 친구들끼리 작품에 대해 피드백 한다. -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5회기 한지 조각보 만들기는 한국의 전통 조각보에 대해 알고 색 한지 조각들을 꾸미고 붙여 자신만의 조각보를 만드는 활동이다. 아동들은 활동 전에 먼저 조각보의 전체적인 형태와 패턴의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한지 조각들 중 자신이 원하는 조각을 선택하여 배치하고 붙여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색의 조각들은 일정한 패턴 없이 자유롭게 붙여 표현하기도 하고 특정한 색 2~3가지 조각을 배열하여 표현하기도 하며 직사각형, 정사각형 조각들로만 구성하여 조각보를 만드는 아동이 있었다. 또한 자신이 스케치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 수정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드는 아동이 있었다.

이것은 아동들의 성향과 특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은 결과물과 스케치를 비교하며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성찰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자신감, 자아존중감을 얻을 수 있다. 한 아동은 활동하는 과정 중 수정을 통해 자신이 처음에 원하던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더 마음에 들었다며 만족하였다.

문제에 있어 아동 스스로 사고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만족감,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5회기 활동의 결과물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한지 조각보 만들기 활동 결과물



(6) 6회기 감정 탈 만들기

[표 18] 6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감정 탈 만들기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 탈 에 대해 알 수 있다. -감정과 다양한 표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원하는 표정의 감정 탈을 만들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풍선, 한지조각, 떡물, 가위, 밀가루 풀, 붓, 물감, 색연필, 드라이기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내면의 성향 및 자신의 무의식 감정표출을 통한 해소가 가능하며 타인에 대한 소통과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합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프로그램 활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전통 탈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감정과 표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표정을 정한 후 스케치를 한다. -풍선에 한지조각을 붙여 탈의 형태 만든다. -한지로 만든 탈을 말린다. -떡물, 물감, 색연필을 이용하여 탈을 꾸민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된 탈을 쓰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6회기 감정 탈 만들기는 전통 탈에 대해 알고 감정과 표정에 따른 탈을 만드는 활동이다. 활동 전 전통 탈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감정과 표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 다음 원하는 표정탈의 스케치를 한다. 스케치를 하는 활동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원활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풍선에 한지조각을 붙여 탈 형태를 만들고 꾸며 탈을 완성한다. 활동 후에는 자신의 표정 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감상과 감정의 나눔 활동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표출하며 타인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활동에 대한 결과물은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감정 탈 만들기 활동 결과물



(7) 7회기 까지 호랑이 재구성하기

[표 19] 7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까치 호랑이 재구성하기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화 까치와 호랑이에 대해 알 수 있다. -한국화 재료에 대해 알 수 있다. -까치와 호랑이를 재구성 하여 표현할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한국화 물감, 먹물, 접시, 화선지, 활동지, 까치 호랑이 프린트,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몰입을 통한 인내와 자기조절, 갈등의 해소와 감상활동을 통하여 만족감, 성취감을 얻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합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시각자료를 통하여 민화 까치호랑이에 대해 설명을 듣고 본다. -한국화 색채 재료인 분채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듣는다. -활동에 대해 듣는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린트 된 까치호랑이를 보고 재구성 하여 활동지에 스케치를 한다. -스케치를 바탕으로 화선지에 먹을 이용하여 나만의 까치 호랑이를 그린다. -한국화 물감을 이용하여 색을 칠한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구성한 까치호랑이의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을 한다.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한다.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7회기 까치호랑이 재구성하기는 한국의 전통 민화인 까치호랑이에 대해 알고 모방, 재구성 하여 그리는 활동이다. 활동 전에 민화에 대한 설명과 분채를 보여 주고 전통 색채재료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흥미를 유발 한다. 그러나 활동에 있어 분채사용이 어렵고 재료의 비용이 비싸다는 점 때문에 대체재료 로 한국화 물감을 사용하였다. 아동은 모방하는 활동을 통해 관찰을 통한 주의력능력 및 기술적인 측면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재구성을 통해 창의적인 표현과 심도 있는 표현활동이 가능하다. 활동이 끝나면 완성된 결과물을 전시하고 감상하여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는다. 감상활동은 작품의 조형적인 특성과 이해도를 향상 시키며 활동에 대해 아쉬웠던 점과 표현의 방법을 인지하고 다시 생각함으로써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활동에 대해 아동은 “한국화 물감이 수채화 물감과 비슷하여 사용하기 편했다, 먹으로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색을 칠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호랑이 얼굴이 재미있게 그려졌다, 틀리면 고칠 수 없어서 그리기가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7회기 활동의 결과물은 <그림 7> 과 같다.

<그림 7> 까치 호랑이 재구성하기 활동 결과물





(8) 8회기 우리의 우주

[표 20] 8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우리의 우주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떡과 소금을 이용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알 수 있다. 공동화를 통해 배려와 소통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의 우주를 친구들과 함께 완성할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굵은 소금, 먹물, 화선지, 색 한지, 가위, 풀, 크레파스, 한국화 물감. 포스터 물감.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공동화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소통,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용적인 태도, 사고촉진,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다.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함	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이번 차시에 대한 활동내용을 듣는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굵은 소금과 떡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효과시범을 보고 실습해 본다. -실습한 작품을 말한다. 	20분	
		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물과 굵은 소금을 이용해 미리 우주바탕을 만든 전지 사이즈를 보여준다. -그 위에 표현할 것을 이야기 한다. -각 자 역할분담을 하여 준비된 전지위에 꾸미거나 색 한지에 그려 플라쥬를 한다. 	40분
		후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화를 그리면서 친구들이 어떠한 배려를 하였는지 발표한다. -활동 전에 약속한 규칙들을 스스로 잘 지켰는지 자기평가를 하고 이야기 한다.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 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8회기 우리의 우주는 떡과 소금을 이용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바탕으로 집단 공동화를 나타내는 활동이다. 먹물을 응용하여 새로운 표현 방법을 제시하여 아동들의 관심을 이끌고 간단한 실습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 시킨다. 활동 전 공동화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성, 역할 분담을 한다. 공동화에 필요한 밑바탕표현은 시간소요가 많이 됨으로 미리 준비된 바탕에 각자 맡은 역할을 다하여 꾸며준다. 공동화 작업은 아동들에게 타인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자아성찰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소통하는 능력과 협동심을 길러주어 만족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는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활동에 있어 아동은 “떡과 소금이 만나 나타나는 효과가 신기하고 마치 우주 같다, 다른 재료로도 실험해보고 싶다, 친구들과 같이 하니 더 재밌다, 처음엔 같이하는 것이 싫었는데 완성하니 멋있어서 괜찮아졌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같이 하는 작업에 있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여 불만을 갖는 아동도 있었지만 이야기하여 타협점을 찾아주니 큰 문제는 없었다. 이번활동의 결과물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우리의 우주 활동 결과물



(9) 9회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표 20] 9회기 활동 지도안

활동 지도안			
주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차시	1/2, 2/2
		대상	8-10세 아동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화를 완성할 수 있다. -배려와 소통을 하여 공동화를 완성할 수 있다. 	시간	40분, 40분 (연계수업)
		재료	전지, 먹물, 접시, 가위, 색 한지, 붓, 작은 상자, 나무젓가락,
인성함양을 위한 미술의 치료적 기능			
공동화를 통하여 타인과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 내면의 힘을 기르고 활발한 사고가 촉진되어 창의성이 향상된다.			
단계	활동과정		시간
1/ 2, 2/ 2 포 합	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인사를 한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한다. -이번 차시에 대한 활동내용을 듣는다. -프로그램 활동 중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20분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지에다 이야기하여 전체적인 도시구상을 한다. -역할분담을 하여 각자 맡은 부분의 요소들을 표현한다.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찍기, 그리기를 통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 -플라주를 하여 표현한다. 	40분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화를 그리면서 친구들이 어떠한 배려를 하였는지 발표한다. -활동 전에 약속한 규칙들을 스스로 잘 지켰는지 자기평가를 하고 이야기 한다. -오늘의 활동과 규칙을 잘 이행 하였는지 이야기 한다. 	20분

9회기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공동화로, 아동들은 토의하여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각 자 역할을 정하여 부분요소들을 표현하여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활동이다. 활동 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구성요소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며 집중을 시키고 전체적인 도시의 구상을 하고 각 자 도시의 어떤 요소들을 꾸밀 것인지 정한다. 표현 활동은 개별적으로 작은 화선지나 한지에 여러장 한다. 개별활동이 끝나면 표현한 그림을 모아 전지 사이즈에 배열하여 붙이고 꾸며 마무리 한다. 공동화를 통해 아동은 협동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식, 책임감, 존중의 태도를 기르며 아동의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번 활동에 대해 아동은“작은 그림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이 되는 게 신기하고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 재미있다, 친구들과 같이 도와서 하니 뿌듯하다, 혼자서 했다면 힘들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9회기의 결과물은 <그림 9> 와 같다.

<그림 9>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활동 결과물



제 2절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통미술과 미술치료교육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만8~10세) 아동의 인성함양과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선정된 아동들의 프로그램 실시 전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전통미술의 주 재료인 먹(먹물), 화선지, 한지 등을 이용하여 활동을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해 아동20명중 단 4명만이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느끼는 가에 대해 35%(7명) 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전통미술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오래된 것, 잘 모르지만 어려울 것 같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할 때 전통미술의 재료탐색의 시간을 충분히 주고 단계적인 노출을 통해 아동들에게 익숙해 질수 있도록 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관심도를 높여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활동에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인성요소들을 접목시켜 인성함양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아동의 인성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선 프로그램 실시 전 인성관련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 같은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결과 변화를 비교하였다. 단 아동선정에 있어 인성 설문지의 결과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아동을 선정하였다. 인성의 요소는 크게 3가지로 자아존중 및 자기결정과 책임감,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의 태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자아존중 및 자기결정은 10문항, 책임감은 5문항,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는 10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약간 그런 것 같다(2점), 보통이다(3점), 대부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으로 구성하여 평균의 값을 비교 하였다. 설문내용의 요약과 그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프로그램 전, 후 설문지 결과 통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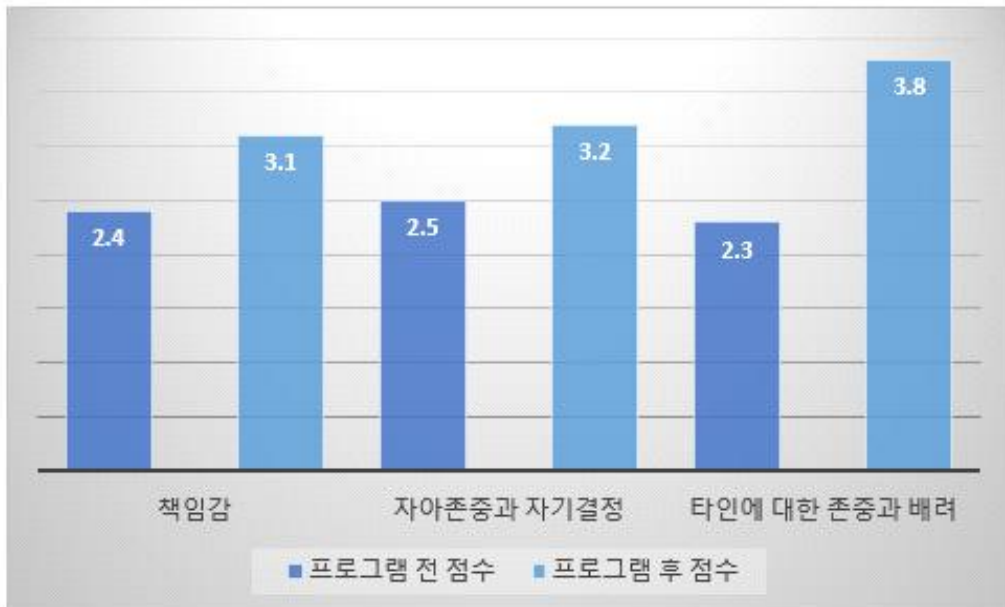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후								
문항 아동	문항					점수 합계	평균 점수			문항	문항					점수 합계	평균 점수
	1	2	3	4	5						1	2	3	4	5		
A	3	3	2	3	2	13	2.6		A	3	3	3	3	3	15	3	
B	3	3	3	2	2	13	2.6		B	4	3	3	3	3	16	3.2	
C	3	2	2	2	2	11	2.2		C	3	4	3	3	3	16	3.2	
D	2	3	2	3	3	13	2.6		D	3	3	3	3	3	15	3	
E	3	2	3	2	3	13	2.6		E	3	3	3	3	3	15	3	
F	2	2	2	2	3	11	2.2		F	3	4	2	3	3	15	3	
G	2	3	3	2	2	12	2.4		G	3	3	3	3	3	15	3	
H	3	2	3	3	3	14	2.8		H	3	3	3	3	3	15	3	
I	3	2	2	3	3	13	2.6		I	3	4	3	3	3	16	3.2	
J	2	2	2	2	2	10	2		J	3	3	3	3	3	15	3	
K	3	2	2	3	2	12	2.4		K	3	3	4	3	3	16	3.2	
L	2	3	3	3	2	13	2.6		L	3	3	3	3	4	16	3.2	
M	3	2	2	2	2	11	2.2		M	3	3	3	3	4	16	3.2	
N	2	3	2	2	2	11	2.2		N	3	3	4	3	3	16	3.2	
O	3	2	2	2	2	11	2.2		O	3	3	4	3	3	16	3.2	
P	3	3	3	3	3	15	3		P	3	4	4	3	3	17	3.4	
Q	2	2	3	3	2	12	2.4		Q	3	3	3	3	3	15	3	
R	3	2	2	2	2	11	2.2		R	3	3	3	3	3	15	3	
S	2	2	2	2	3	11	2.2		S	3	3	3	3	3	15	3	
T	2	2	2	2	2	10	2		T	3	3	3	3	3	15	3	
문제별 테마	책임감					TOTAL 평균	2.4		문제별 테마	책임감					TOTAL 평균	3.1	

문항 아동	문항															점수 합계	평균 점수																			
	6	7	8	9	10	11	12	13	14	15	6	7	8	9	10					11	12	13	14	15												
A	3	2	3	2	3	2	3	2	3	2	3	2	3	2	25	2.5		A	4	3	4	3	4	3	3	3	4	3	34	3.4						
B	3	3	2	2	2	2	3	3	2	3	2	3	2	3	25	2.5		B	4	3	3	3	3	3	3	3	4	3	32	3.2						
C	3	3	3	2	3	2	3	3	2	3	2	3	2	3	27	2.7		C	3	4	3	3	3	3	4	3	3	4	33	3.3						
D	3	3	3	2	3	3	3	2	3	2	3	2	3	2	27	2.7		D	4	3	3	4	3	3	3	2	3	3	31	3.1						
E	4	2	2	3	3	2	2	2	2	3	2	3	2	3	25	2.5		E	4	3	3	3	3	3	3	3	3	3	31	3.1						
F	2	2	2	2	2	3	2	2	2	3	2	2	3	2	22	2.2		F	3	3	3	3	3	3	2	2	2	3	27	2.7						
G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1	2.1		G	4	3	3	3	3	3	3	3	3	3	31	3.1						
H	2	2	2	2	2	3	3	3	3	3	2	3	2	24	2.4		H	3	3	4	3	3	3	3	3	3	3	3	31	3.1						
I	3	3	3	2	3	2	2	2	3	3	3	3	2	26	2.6		I	3	4	3	3	3	4	3	3	3	4	33	3.3							
J	2	3	3	3	2	3	3	3	2	2	3	2	2	26	2.6		J	3	4	3	3	4	3	3	3	2	3	31	3.1							
K	3	2	2	2	3	2	3	2	3	2	3	2	3	24	2.4		K	4	3	3	3	3	3	3	3	3	3	3	31	3.1						
L	3	3	2	2	2	2	3	3	2	3	2	3	2	25	2.5		L	4	4	3	3	3	3	3	3	3	3	3	32	3.2						
M	3	3	3	3	3	3	3	2	2	3	2	3	2	27	2.7		M	4	4	3	4	4	3	3	3	3	4	35	3.5							
N	3	3	3	2	3	3	3	3	3	3	2	2	3	28	2.8		N	3	4	3	3	4	4	3	4	4	3	35	3.5							
O	4	2	2	3	2	2	2	3	2	3	2	3	2	25	2.5		O	4	3	3	3	3	3	3	3	3	3	3	31	3.1						
P	2	2	3	2	3	3	4	2	2	3	2	3	2	26	2.6		P	3	3	3	3	4	3	4	3	2	3	31	3.1							
Q	3	2	3	2	2	2	3	3	2	2	2	2	2	24	2.4		Q	3	3	3	3	3	3	4	4	3	3	32	3.2							
R	2	2	2	2	2	3	3	3	3	2	2	2	2	24	2.4		R	3	3	3	3	3	3	3	3	3	3	3	30	3						
S	3	3	3	2	2	2	2	2	2	3	2	3	2	24	2.4		S	3	3	3	3	3	3	3	3	2	3	29	2.9							
T	2	3	3	3	2	3	3	2	2	2	2	2	2	25	2.5		T	3	3	3	3	3	4	4	2	3	3	31	3.1							
문제별 테마	자아존중및 자기 결정															TOTAL 평균	2.5		문제별 테마	자아존중및 자기 결정															TOTAL 평균	3.2

*프로그램 실시 전 (왼쪽), 후(오른쪽)

문항 아동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점수 합계	평균 점수
A	3	2	3	4	3	2	3	2	3	2	27	2.7
B	2	2	3	2	2	2	3	2	2	2	22	2.2
C	2	3	3	3	3	2	3	2	3	2	26	2.6
D	3	3	3	2	2	4	3	5	2	2	29	2.9
E	2	3	2	3	2	2	2	2	2	2	22	2.2
F	2	4	2	2	3	2	2	2	2	2	23	2.3
G	2	2	2	2	2	2	2	2	2	2	20	2
H	2	3	2	2	2	2	3	2	2	3	23	2.3
I	2	3	2	2	2	2	3	2	2	2	22	2.2
J	2	2	2	2	2	2	3	2	3	2	22	2.2
K	3	2	3	4	3	2	2	2	3	2	26	2.6
L	2	2	3	2	2	3	2	2	3	3	24	2.4
M	2	2	2	2	2	2	3	2	3	2	22	2.2
N	2	2	2	2	2	2	3	2	2	2	21	2.1
O	2	3	2	2	2	2	2	2	2	2	21	2.1
P	2	4	2	2	3	2	3	2	2	2	24	2.4
Q	2	2	2	3	2	2	2	2	2	2	21	2.1
R	2	3	2	3	2	2	2	2	2	3	23	2.3
S	2	3	2	2	2	2	2	2	2	2	21	2.1
T	2	2	2	2	2	2	2	2	3	2	21	2.1
문제별 테마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TOTAL 평균	2.3

문항 아동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점수 합계	평균 점수
A	4	3	4	4	5	3	4	3	5	4	39	3.9
B	3	3	4	4	3	3	4	4	3	4	35	3.5
C	3	4	4	4	4	3	4	4	3	4	37	3.7
D	4	4	4	5	3	5	4	5	3	4	41	4.1
E	3	4	4	3	5	4	4	4	3	4	38	3.8
F	4	5	3	4	4	3	4	4	3	4	38	3.8
G	3	3	3	4	4	3	5	3	4	3	35	3.5
H	3	5	3	3	4	4	4	5	3	5	39	3.9
I	4	5	3	4	5	3	4	3	4	4	39	3.9
J	3	4	3	4	4	3	4	3	4	3	35	3.5
K	4	3	4	5	4	4	3	4	5	4	40	4
L	3	4	4	3	4	4	3	4	4	4	37	3.7
M	4	3	4	3	4	3	4	4	3	3	35	3.5
N	3	5	3	5	3	3	5	5	4	4	40	4
O	3	4	4	5	4	3	4	3	4	4	38	3.8
P	4	5	4	4	5	4	3	5	4	4	42	4.2
Q	3	3	4	4	4	3	3	4	4	4	36	3.6
R	4	3	3	4	4	3	3	3	4	3	34	3.4
S	4	4	3	4	3	4	4	3	4	4	37	3.7
T	4	3	3	3	4	4	4	4	4	3	36	3.6
문제별 테마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TOTAL 평균	3.8



프로그램 실시 전 자아존중 및 자기 결정부분의 평균 값 은 2.5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3.2로 상승 하였고 책임감은 프로그램 실시 전 2.4에서 실시 후 3.1로 상승, 타인에 대한 존중 및 배려는 프로그램 실시 전 2.3에서 실시 후 3.8로 상승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인성함양에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9회기의 프로그램을 끝낸 후 아동들에게 전통미술에 대한 생각과 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내용으로 “한지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은 해 봤는데 먹물과 화선지를 이용해 그리는 것은 처음 해 보았다, 틀리면 고칠 수 없어서 어려웠는데 그리는 것 보다 마음대로 하는 활동이 더 많아서 좋았다. 친구들과 같이하는 활동이 더 재밌었다. 색종이 보다 한지가 색이 더 예쁘고 만졌을 때 느낌이 더 좋았다. 탈 가면 만드는 수업이 재미있었다, 처음엔 전통미술 활동을 한다고 하였을 때 재미없을 것 같고 하기 싫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도 더 하고 싶다,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좋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아동1은 미술시간이 싫고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것이 싫다고 부정적 성향을 드러냈다. 그러나 아동1은 그리는 활동이 아닌 한지를 구기거나, 먹을 불거나 찍거나 하는 활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전통미술을 이용하여 놀이로써 느끼게끔 하는 활동이 아동1에게 몰입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고 흥미를 유발 한 것으로 보였다.

아동2는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며 수업시간마다 통제가 힘들어 꾸중을 잘 듣는다는 평가가 있던 아동이었지만 먹을 화선지에 묻혀 던지고 찢고 하는 자유로운 방법이 허락된 활동에서 집중을 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 점차 활동시간에 적극적이고 스스로 통제하며 즐거워하였다.

아동3은 자유롭게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활동에서 소극적이며 먹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 이유를 묻자 너무 번지고 틀릴까봐 무섭다고 하였다. 아동3의 행동을 관찰하여 보니 정리정돈도 열을 맞추어 하고 색연필도 로고가 보이게 정리하며 선을 긋는 것도 자를 이용하여 긋는 강박증 성향을 보였다. 하지만

회기가 지날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면서 점차 먹물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며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4는 낮가림이 심하고 활동에 소극적이며 결과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활동이 끝나고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을 받고나니 회기가 지날수록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5는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고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활동 후 친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거듭하면서 점차 밝아지고 회기 마지막에 공동화 활동에 있어 적극적이며 가장 즐거운 활동이라 하였다.

아동6은 활동을 하기 전에 어렵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포기하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끝까지 완성해 보자며 지지와 격려를 보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자 점차 결과물을 완성해 가고 활동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아동7은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고 인상을 쓰며 친구들에게 언어폭력과 짜증을 많이 내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탈가면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표정에 대해 표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 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친구들의 기분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면 프로그램 실시 후 전통미술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자아성찰의 태도를 보였다. 또한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도가 35%(7명)에서 80%(16명)으로 증가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대상의 수가 적고 8세의 아동들만 대상으로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아동의 인성함양과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 6장 제 언

본 연구는 미술의 치료적 기능과 전통미술을 활용하여 아동의 인성함양과 전통 미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광주시 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저학년 만 8~10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고 활동의 이해에 무리가 없으며 사전 인성관련 설문지를 통해 평균점수보다 낮은 아동을 선정하였다. 개발 프로그램은 2017년 1월2일부터 3월 4일까지 18차시 주 2회 총9회기를 걸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활동 전, 후 설문지와 질의응답, 선행연구 조사, 면담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에서 미술의 치료적 기능은 감정의 표현과 언어적 표현이 미숙한 아동들에게 심리적인 표출과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게 하고 몰입을 통한 활동은 아동의 스트레스의 감소와 심리적, 정서적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서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둘째, 활동 회기마다 인성요소와 관련된 구성을 하여 아동이 자연스럽게 책임감, 자기통제, 자아존중,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진실성 등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활동 후 긍정적인 피드백 시간과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결과물에 대해 발표하며 이번 활동에서 정한 약속의 이행을 스스로 잘 지켰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아동은 자아성찰과 긍정적인 관계형성,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 책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향상 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

셋째, 활동 전 아동들은 전통미술에 대한 경험의 부족과 어렵고 재미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활동에 대한 흥미도가 다소 낮았으나 회기가 진행 될 수록 점차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통미술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현장에서 서구화된 가치와 내용을 중심으로 지도되며 전통 문화 미술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 회기 초기에는 먹물의 수정할 수 없고 번지며 다루기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화선지나 한지에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에게 형태적인 것을 그려내는 방식이 아닌 불거나 찍거나 떨어트려 하나의 놀이로써 작품을 만들어 가는 활동방법을 선택하여 즐거움과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접근을 시도 하였다. 또한 재료의 탐색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지속적인 전통 미술의 재료를 아동들에게 노출 시키고 아동들이 접해본 재료들과 같이 사용하며 흥미로운 활동들을 진행함으로써 전통미술에 대한 낯설고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게끔 유도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의 전통미술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 되었고 어렵고 낯선 것이 아닌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미술의 치료적 기능과 전통미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동의 올바른 인성형성과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미술에 대한 체험의 기회와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전통미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위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만8~10세의 연구대상 아동에게 ‘전통미술에 대한 체험을 해본 경험이 있는 가’ 라는 질문에 단 2명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과서에 전통미술에 관련된 활동의 비율이 낮고 그마저 교육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통미술이 교육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없고 가치가 낮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전통미술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선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전통미술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재해석하는 등 끊임없는 탐구와 새로운 방법적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미술과 타 교과와의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미술의 치료적 기능을 활용하여 미술활동 과정에서 인성함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연구대상의 수가 부족하고 인성요소들 또한 제한적이어서 인성교육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성을 도덕성,

사회성, 감성으로 크게 구분하여 접근한다면 미술활동은 감성 부분에 효과적인 수는 있으나 다른 인성들까지 미술활동 하나로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인성요소들과 연관성이 있는 타 교과와 미술활동의 연계를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한다면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며 새로운 인성교육의 방안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강선보 외,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인성 교육』, (파주 양서원, 2008).
- 김선현, 『마음을 읽는 미술치료』, (서울 넥서스, 2006).
- 김소영, 『유아를 위한 창작 조형 활동: 재료를 중심으로』, (창지사, 2004).
- 백낙선, 『색채심리』, (미진사, 2010).
- 이근매, 아오키 도모코, 『콜라주 미술치료』, (학지사, 2010).
- 야나기 무네요시, 『조선과 그 예술』, (신구문화사, 2006)
- 양정실 외,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구현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유미, 『현장적용을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과 진행』, (아담북스, 2010).
- 정원식, 『정의의 교육』 (배영사, 1969).
- 정문성 외,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개정판)』, (교육과학사, 2007).
- 정희영, 『피아제와 교육』, (교육과학사, 2008).
- 최순우, 『나는 내것이 아름답다』, (학고재, 2002)
- 황정규, 『교육평가』 (교육출판사, 1968).
- 황유경, 『미술치료로 아이들에게 한걸음 다가서기』, (혜성출판사, 2005).
- 홍경자, 『청소년의 인성교육』, (학지사, 2004).
- Judith A. Rubin 저, 『미술치료학개론』, 김진숙 역, (학지사, 2006).
- Read, H 『예술을 통한 교육』, 김성숙, 황향숙 외 역, (서울 학지사, 2007).

< 학위논문 >

- 강난영, “전통미술을 활용한 미술교육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16.
- 김은정,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미술교육과 치료적 교수법 접목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2012), p.23.
- 김한결, “미술치료적 접근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 연구: 중학교 미술과 체험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pp.1-15.
- 김 엽, “전통미술교육 강화를 위한 수업자료 제작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2009), p.8.
- 박진희, “미술치료적 접근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 이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입체조형 만다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p.94-95.
- 박선영, “전통미술 감상을 통한 한국화 응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학교 미술과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1), p.5.
- 송행화, “아동의 인성교육을 위한 미술치료의 방법과 실제”,(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2007), p.10
- 송인혜, “전통미술을 기초로 한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초등학교 미술과 5학년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미술전공, 2010), p.5.
- 이경원, “청소년의 정서인식 및 표현을 위한 색채 중심 미술치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2015), p.4.
- 이상화, “조선후기<책가도>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중학교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2016), p35-37.
- 전두리.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중학교 미술교과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2015), p.5.

최영숙, “초등교사의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 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2016), pp.106-107.

< 학술지 >

신미경, 오승진, “협동화를 통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서, 행동문제 아동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례연구”, 『한국아동미술학회지』, No.1, vol.13, (2014), pp.33-50.

최명숙, “미술과 수업에서 한국화 한지민예품 교육-2009개정 초등 3-4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지』, vol.37, (2014), pp.46-47.

최보건, “인성의 형성과 치료를 위한 미술교육 사례 연구- 미술감상을 통한 인성 치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0, (2011), pp.301-332.

< 사이트 >

조셉슨 연구소, <http://josephsoninstitute.org/sixpillars.html/>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 인성교육 시행 계획(협력적 인성을 지닌 서울학생)

<http://sen.go.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네이버 ‘지식백과’ 교육학용어사전 (美術教育),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10690&cid=42126&categoryId=42>

전통미술의 감상, 네이버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347&cid=47310&categoryId=4731>

0

(부록 1) 인성 관련 설문지

나이 :

이름 :

*다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옳고 그른 답이 없는 설문지이기에 솔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런 것 같다	보통이다	대부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스로 내 정리정돈을 한다.					
2	한번 마음먹은 일은 힘들어도 끝까지 해낸다.					
3	나는 내 일은 스스로 한다.					
4	나는 원하지 않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이면 최선을 다한다.					
5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7	나는 우리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8	나는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해낸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한다.					
10	누구든지 나를 좋아한다.					
11	실패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도전한다.					
12	친구들은 주로 내 의견을 많이 따른다.					
13	나는 칭찬을 자주 듣는다.					

14	나는 좋아하고 싫은 것이 분명하다.					
15	나는 친구들이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준다.					
16	나는 친구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17	나는 나의 의견보다 친구들 의견이 더 좋다 생각되면 곧 받아들인다.					
18	나는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19	나는 양보를 잘 한다.					
20	나는 친구들에게 가끔 상처주는 말을 한다.					
21	내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하는 편이다.					
22	하기 싫은 일은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편이다.					
23	나는 상대방에게 별로 조심하지 않고 말한다.					
24	나는 친구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25	나는 행복하다.					

(부록 2) 한국 전통 민화 “까치 호랑이” 참고 이미지

